

英才教育研究

Journal of Gifted/Talented Education

2004. Vol 14. No 4, pp. 125-149

영재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식

최 문 경 · 박 정 옥 (경원대학교)

이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교사들의 영재교육에 대한 현황과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영재교육에 대한 일반적 인식, 영재의 특성, 영재의 판별, 영재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영재 담당교사에 대한 인식을 설문문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설문 분석 결과 초등학교 교사들의 영재교육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으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이었으며, 영재의 지적 특성에 대한 인식은 높았으나, 영재의 정서적 특성에 대한 인식은 낮았다. 그리고 영재의 조기판별에 대한 인식은 높았으나, 영재의 판별 기준에 대한 인식이나 판별 능력은 낮은 편이었다. 또한 영재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은 접해본 경험 부족으로 인해 매우 낮았으며, 영재 담당 교사 연수에 대한 인식은 높았으나, 영재 담당 교사에 대한 의향은 매우 낮았다. 이로써 영재교육에 대한 이론적 인식은 보통이나 긍정적인 수준이었지만 실천적 인식은 영재교육에 대한 열악한 재정적, 행정적 환경으로 인해 낮은 수준에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영재교육에 대한 초등의 현실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교사들의 영재교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영재, 영재 교육, 영재의 특성, 영재의 판별, 영재 담당 교사

I. 서론

급격히 변화하는 과학문명과 교통·통신 수단의 발전은 우리 생활뿐 아니라 교육의 개혁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교육도 이제는 개별성의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각 개인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그 특성에 적합한 교육적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중에서도 각 영역에서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관심과 교육적 배려는 이제까지의 무관심과 방치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영재교육진흥법이 1999년 12월 국회를 통과, 2000년 1월 제정·공포되었으며, 2002년 3월부터 초,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영재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인식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영재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도 왜곡되어 이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재교육이 전인교육이나 평등교육에 위배된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자리잡혀 있고, 민주주의 원칙과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편견이 팽배하기 때문에, 영재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조명해 보는 연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헌법에도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규정되어 있고, 교육법에도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재들은 교육의 기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개인차를 무시한 획일적 교육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영재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미래의 인재양성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영재아들이 기본적인 교육권을 누려 그들이 잠재 능력을 제대로 계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영재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영재의 판별법,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영재교육의 운영방법, 영재 담당 교사의 자질 및 연수 등 여러 방향에서의 모색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일선에 있는 교사들의 영재교육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빼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초등 영재를 판별하기 위해 부모 추천이나 또래 추천, 그리고 자기 추천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지 않고, 일차적 단계로 담임교사의 추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 교사들의 영재교육에 대한 인식은 영재를 선발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영재교육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간과해서는 안 될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교사들이 영재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단지 학습 능력이 뛰어난 아동과 구분하지 못한다면 영재들은 교사들의 추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들의 교육 기회는 박탈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영재담당교사가 아닌 일반 초등학교 교사들이 영재교육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일선 현장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영재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자는 초등학교 교사들의 영재교육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영재교육의 영역을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즉, 영재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영재의 특성, 영재의 판별, 영재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영재 담당 교사의 다섯 영역으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식의 현황을 세부 설문을 통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영재교육에 대한 일선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식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봄으로써, 앞으로의 효율적인 영재교육과 영재 담당교사 양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I. 연구 방법과 절차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04년부터 서울시 교육청 역점 사업으로 영재 학급을 운영하는 영재 중심학교를 우선 대상으로 하였다. 모두 8학교의 교사 17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변인별 분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표 1 > 연구 대상자의 변인별 분포

성별	남	13	7.5
	여	161	92.5
교직경력	5년 미만	34	19.5
	5년 ~ 10년 미만	26	14.9
	10년 ~ 15년 미만	20	11.5
	15년 ~ 20년 미만	22	12.6
	20년 이상	72	41.4
영재교육관련 연수 경험	있다	14	8.0
	없다	160	92.0
영재아들을 지도해 본 경험	있다	6	3.4
	없다	168	96.6
전 체		174	100

2.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문제를 위해 본 연구자는 설문지 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도구는 다른 연구에서 사용했던 설문지와 영재교육에 대한 문헌을 참고로 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제작하였다. 검사도구의 타당도는 영재교육 전문가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았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검사도구의 하위 영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검사도구의 하위 영역

영역	영역 하위 영역	점수
영재교육에 대한 일반적 인식	1. 영재교육진흥법 2. 교육이 영재에 미치는 영향 3. 영재교육 필요성 3-(1). 필요 이유, 3-(2). 불필요 이유 4. 영재교육 서비스에 대한 인식 5. 영재교육 추천 의사 6. 영재교육의 활성화 10. 영재의 지도 실태 13. 영재교육 효율성의 조건	10
영재의 특성	15. 영재의 특성(1-16)	16
영재의 판별	7. 영재교육 실시 시기 8. 영재 판별 방법 9. 학급 내 영재의 유무	3
영재교육 프로그램	11. 영재 프로그램 이해도, 11-(1). 영재 프로그램 사용 의향 16. 영재교육 프로그램(1-9)	11
영재 담당 교사	12. 영재교육 연수 참여 의향, 12-(1). 참여, 불참여 이유 14. 영재 담당 교사 의향 14-(1). 이유, 14-(2). 원하는 인센티브	5
전 체		45

3. 연구 절차

본 연구를 위해 2004년 2월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설문 대상은 본 조사 대상이 아닌 초등학교를 설정하였으며, 10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예비 조사를 걸쳐 교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문항이나 분석이 불가능할 정도의 문항에 대해서 영재 전문가와의 협의 하에 수정 보완 처리를 하였다.

본 조사는 4월과 5월에 걸쳐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서울 소재의 영재 학급 중심 초등학교 8개 학교를 방문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총 190여명을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설문지는 총 180여부를 회수하였다. 이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것으로 판단되는 6부를 제외하고 총 174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4. 자료의 처리

설문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전산화된 통계 프로그램인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er. 10.1을 이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통계적 처리를 위해 사용된 방법은 연구 문제의 특성에 따라 빈도 및 백분율, 평균과 표준 편차, 그리고 변인별 인식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χ^2 검증)을 사용하였다. 변인별 검증에서 배경변인 중 영재교육관련 연수의 경험 여부와 영재지도의 경험 여부는 응답자 비율이 너무 낮아 변인간 비교를 위한 결과 분석의 자료로는 활용하지 않았다. 결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도 판정수준은 .05로 설정하였고, 변인별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유의도 수준 $P < .05$ 로 하여 t테스트를 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제시를 생략하였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변인만 결과에 제시하고 논의하였다.

Ⅲ. 연구 결과 및 해석

1. 초등학교 교사들의 영재교육에 대한 일반적 인식의 현황

영재교육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대한 문항은 다음과 같다.

< 표 3 > 영재교육에 대한 일반적 인식의 설문 문항 번호 및 내용

영재교육에 대한 일반적 인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재교육진흥법 2. 교육이 영재에 미치는 영향 3. 영재교육 필요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3-(1). 필요 이유 3-(2). 불필요 이유 4. 영재교육 서비스에 대한 인식 5. 영재교육 추천 의사 6. 영재교육의 활성화 10. 영재의 지도 실태 13. 영재교육 효율성의 조건
-----------------	---

가. 영재교육진흥법에 대한 인식의 현황

영재교육진흥법에 대한 질문에 72.4%의 많은 교사들이 들어본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고 하였다. 영재교육진흥법에 대해 아직도 정보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영재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홍보가 더욱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 표 4 > 영재교육진흥법에 대한 분석

N(%)	31(17.8)	126(72.4)	17(9.8)	174(100)
------	----------	-----------	---------	----------

나. 교육이 영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의 현황

현재의 학교교육이 영재의 잠재능력을 제대로 계발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들이 전체 교사들의 58.7%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많은 교사들이 현재의 초등학교의 교육 실태가 영재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뜻한다.

< 표 5 > 교육이 영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N(%)	9(5.2)	44(25.3)	101(58.0)	20(11.5)	174(100)

다. 영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현황

영재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교사들이 전체 응답자의 87.4%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앞의 문항에서 현재의 초등학교 교육실태가 영재들에게 적합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는 대다수의 교사들이 영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높은 인식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6 > 영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분석

N(%)	152(87.4)	3(1.7)	19(11.0)	174(100)

라. 영재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인식의 현황

영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152명의 교사 중에서, 그 이유로 아동의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시키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교사들이 전체 응답자의 46.7%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많은 교사들이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국가적 목적인 미래의 인재 양성이거나 사회적 목적인 균등한 교육 기회보다는 개인적 차원의 목적인 아동의 잠재적 능력 발휘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 표 7 > 영재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분석

N(%)	67(44.1)	71(46.7)	13(8.6)	1(0.7)	152(100)

마. 영재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인식의 현황

영재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반응한 교사들은 3명으로 아주 적었기 때문에 변인별 분석이나 빈도 분석을 하지 않았다. 영재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교사 3명 중

2명이 지식위주의 교육보다 전인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1명은 기타 항목에 '제대로 된 영재교육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영재 선발 시 기준이 모호하여 영재아로 선발된다는 것 자체에도 믿음이 가진 않아 영재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기록하였다. 이는 소수의 교사이긴 하지만 아직도 전인교육이나 평준화 교육이라는 영재교육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바. 영재의 특별한 교육적 서비스에 대한 인식의 현황

영재들이 특별한 교육적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교사들이 전체 응답자의 87.4%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많은 교사들이 영재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낄 뿐 아니라 영재에 대한 교육적 서비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8 > 영재의 특별한 교육 서비스에 대한 분석

N(%)	146(84.0)	5(2.9)	23(13.2)	174(100)

사. 영재교육 추천 의사에 대한 인식의 현황

영재가 있을 경우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할 의향이 있는 교사들이 전체 응답자의 95.5%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많은 교사들이 영재들의 교육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과 마찬가지로, 교사들이 영재들에게 적합한 교육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가 있음을 나타낸다.

< 표 9 > 영재교육 추천 의사에 대한 분석

N(%)	167(96.0)	7(4.0)	174(100)

아. 영재교육 활성화에 대한 인식의 현황

영재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교사들이 전체 응답자의 90.7%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많은 교사들이 영재교육에 대해 이미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있으며, 영재교육에 대한 전망을 희망적으로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10 > 영재교육 활성화에 대한 분석

N(%)	156(89.7)	1(0.6)	17(9.8)	174(100)

자. 영재 지도에 대한 인식의 현황

< 표 11 > 영재 지도에 대한 분석 N(%)

다른 아동과 똑같이 정규 수업으로 지도	45(25.9)	2(1.1)	2(1.1)	49(9.4)
정규 수업 중 심화학습의 기회 제공	21(12.1)	7(4.0)	1(0.6)	29(5.6)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안내	20(11.5)	5(2.9)	1(0.6)	26(5.0)
학부모에게 지도 방법을 안내	13(7.5)	3(1.7)	1(0.6)	17(3.3)
무응답	75(43.1)	157(90.2)	169(97.1)	401(76.8)
전 체	174(100)	174(100)	174(100)	522(100)

영재라고 생각했었던 아동을 어떻게 지도하고 있었느냐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을 알아보는 문항에서 순위를 적도록 했기 때문에 변인별 분석이 아닌 항목별 순위 분석을 하였다.

이 문항의 응답에서 무응답이 많은 이유는 다른 문항에서 분석된 결과인 학급 내에 영재가 없다고 생각하는 교사들이 많은 까닭에 응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대다수의 교사들이 1순위 하나의 항목에 응답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그만큼 영재에 대해 다른 대안이 없이 정규 수업에서 똑같이 지도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다른 아동과 똑같이 정규 수업으로만 지도했다는 항목에 가장 많은 응답자가 있다는 사실은 많은 교사들이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영재교육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는 하지만, 학급 내 영재에 대한 판별 방법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영재에 대한 교육적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차. 영재교육의 효율성을 위한 것에 대한 인식의 현황

앞으로 영재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문항에서도 순위를 적도록 했기 때문에 변인별 분석이 아닌 항목별 순위 분석을 하였다.

가장 많은 교사들이 영재교육에 있어서 교사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자료가 개발되어 많이 보급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그리고 영재를 직접 지도하는 교사에 대한 연수와 양성, 교사들이 영재를 판별 하는 정확한 방법 등에 대한 연구 등이 영재교육을 더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 표 12 > 영재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분석 N(%)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교사의 연수와 양성	40(23.0)	38(21.8)	39(22.4)	117(22.4)
영재학급이나 영재학교의 설치	12(6.9)	15(8.6)	27(15.5)	54(10.3)
영재교육 프로그램과 자료의 개발과 보급	56(32.2)	37(21.3)	24(13.8)	117(22.4)
영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교사, 학부모 및 사회의 인식 증대	19(10.9)	9(5.2)	7(4.0)	35(6.7)
영재에 대한 정확한 판별 방법	43(24.7)	35(20.1)	12(6.9)	90(17.2)
모르겠다	1(0.6)	0(0)	0(0)	1(0.2)
기타 및 무응답	3(1.7)	40(23.0)	65(37.4)	108(20.7)
전 체	174(100)	174(100)	174(100)	522(100)

2. 초등학교 교사들의 영재의 특성에 대한 인식의 현황

영재의 특성에 대한 인식의 문항은 다음과 같다.

< 표 13 > 영재의 특성에 대한 설문 문항 번호 및 내용

영재의 특성	15. 영재의 특성 (1-16)
--------	-------------------

< 표 14 > 영재의 특성에 대한 분석

N(%)

1	영재는 학업 성취도가 높은 아동만을 뜻한다.	153(87.9)	8(4.6)	13(7.5)	174(100)
2	영재는 일반 아동에 비해 유머감이 뛰어나다.	53(30.5)	108(62.1)	13(7.5)	174(100)
3	영재는 인지발달 속도가 일반 아동보다 빠르다.	150(86.2)	19(10.9)	5(2.9)	174(100)
4	영재는 일반 아동에 비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39(22.4)	121(69.5)	14(8.0)	174(100)
5	영재는 일반 아동에 비해 친구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	115(66.1)	43(24.7)	16(9.2)	174(100)
6	영재는 관심이 있는 일은 끝까지 몰두하는 강한 과제 집착력을 갖고 있다.	164(94.3)	5(2.9)	5(2.9)	174(100)
7	영재는 따로 교육하지 않아도 스스로 학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102(58.6)	60(34.5)	12(6.9)	174(100)
8	영재는 일반 아동에 비해 신체 발육이 빠른 편이다.	24(13.8)	137(78.7)	13(7.5)	174(100)
9	영재들은 정서적으로 예민하다.	125(71.8)	37(21.3)	12(6.9)	174(100)
10	수업에 잘 적응을 못하거나 학업성취도가 매우 낮은 아동 중에도 영재가 있을 수 있다.	140(80.5)	25(14.4)	9(5.2)	174(100)
11	영재는 자신이나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다.	97(55.7)	61(35.1)	16(9.2)	174(100)
12	영재는 반복하거나 훈련받는 것을 싫어한다.	124(71.3)	40(23.0)	10(5.7)	174(100)
13	영재는 완벽한 것을 좋아한다.	67(38.5)	93(53.4)	14(8.0)	174(100)
14	영재는 모든 과목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156(89.7)	5(2.9)	13(7.5)	174(100)
15	영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잘 할 수 있다.	154(88.5)	7(4.0)	13(7.5)	174(100)
16	영재는 어릴 때부터 일반 아동과 다르다.	89(51.1)	71(40.8)	14(8.0)	174(100)
전 체		1752(62.9)	840(30.2)	192(6.9)	2784(100)

영재의 특성에 대한 분석과 해석은 변인별 분석을 하지 않고, 정답자 수와 오답자 수의 빈도와 백분율을 가지고 해석하였다. 이는 영재의 특성을 올바르게 알고 있는 교사의 빈도를 이용한 분석으로도 영재의 특성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정답자 수의 결과를 보았을 때, 대체로 영재들의 학습적인 측면이나 지적인 면보다는 정의적 영역에 있어서 오답자 수가 더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다수의 교사들이 영재에 대한 지적인 면에 있어서의 인식은 높으나 정의적 영역에 있어서의 영재의 특성에 대한 인식은 낮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재아의 실제 지도에 있어서도

지적인 면에서는 교사들이 지도가 가능할 수 있으나 심리적 측면에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상담에서는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영재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재교육에 대한 연수에서 영재의 지적인 면뿐만 아니라 영재아의 정의적 측면에서의 연수와 영재 상담에 있어서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 하겠음을 보여준다.

3. 초등학교 교사들의 영재의 판별에 대한 인식의 현황

영재 판별의 인식에 대한 문항은 다음과 같다.

< 표 15 > 영재의 판별에 대한 설문 문항 번호 및 내용

영 재 의 판 별	영 재 의 판 별
	7. 영재교육 실시 시기
	8. 영재 판별 방법
	9. 학급 내 영재의 유무

가. 영재교육 실시시기에 대한 인식의 현황

< 표 16 > 영재교육 실시시기에 대한 분석

영 재 의 판 별	유치원	초등 중학년	초등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	합계
N(%)	43(24.7)	45(25.7)	39(22.4)	29(16.7)	16(9.2)	2(1.2)	174(100)

전체 응답자 중 25.4%의 교사들이 영재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가장 적당한 시기로 초등학교 저학년을 응답하였고, 유치원, 초등 중학년, 초등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교사들이 영재교육이 조기에 실시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이미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재교육의 조기 실시는 영재아 개인의 알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줄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조기에 인재를 발굴하여 체계적인 양성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 영재 판별 방법에 대한 인식의 현황

영재 판별 방법에 대한 인식의 문항에서는 순위를 적도록 했기 때문에 변인별 분석이 아닌 항목별 순위 분석을 하였다.

많은 교사들이 영재 판별 방법으로 창의력 검사를 가장 많이 선호함을 알 수 있고, 지능 검사와 학업 성취도 검사 등의 각종 검사들을 신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교사 자신의 추천이나 부모나 동료의 추천 방법에 대해서는 매우 신뢰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교사의 추천이 1단계 판별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 실정에 대한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교사 스스로도 자신들의 추천이 올바른 판별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영재교육의 효과를 위해서는 1단계 판별 시에 교사의 추천 뿐 아니라 각종 다양한 판별 근거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영재 판별을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한 연수가 일반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서 교사의 추천 방법도 교사 스스로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표 17 > 영재 판별 방법에 대한 분석 (복수 응답 가능) N(%)

지능 검사	48(27.6)	70(40.2)	18(10.3)	136(26.1)
학업 성취도	10(5.7)	27(15.5)	45(25.9)	82(15.7)
창의력 검사	106(60.9)	38(21.8)	15(8.6)	159(30.5)
교사의 추천	6(3.4)	9(5.2)	21(12.1)	36(6.9)
부모의 추천	0(0)	1(0.6)	3(1.7)	4(0.8)
학급 동료의 추천	0(0)	0(0)	1(0.6)	1(0.2)
자기 지명	0(0)	0(0)	0(0)	0(0)
잘 모르겠다	2(1.1)	0(0)	1(0.6)	3(0.6)
기타 및 무응답	2(1.1)	29(16.7)	70(40.2)	101(19.3)
전 체	174(100)	174(100)	174(100)	522(100)

다. 학급 내 영재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현황

학급 내에 영재가 없다고 응답한 교사들이 전체 응답자의 74.7%로 가장 많았고,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교사들이 14.5%, 그리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들이 11.0%로 가장 낮았다. 이는 많은 교사들이 영재의 정의와 특성 및 영재 판별 방법에 대해 명확히 모르기 때문에 영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재의 일차적 판별을 교사 추천으로 하고 있음은 영재교육의 효율성에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을 시사하고 있다.

< 표 18 > 학급 내 영재의 존재에 대한 분석

N(%)	19(11.0)	128(73.6)	27(15.5)	174(100)

또한 학급 내의 영재의 수를 기록 해준 교사는 모두 18명이었고, 학급의 인원수는 30~47명 정도였으며, 18명 중 72.2%의 교사들이 학급 내에 영재가 단지 1명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영재를 대체적으로 5% ~ 15%로 보는 이론적 입장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5% 이내의 아주 극소수로 보고 있는 문제점을 보여준다.

< 표 19 > 학급 내 영재의 수 N(%)

1	13	72.2
2	4	22.2
3	1	5.6
전체	18	100.0

4. 초등학교 교사들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의 현황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인식에 대한 문항은 다음과 같다.

< 표 20 >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 문항 번호 및 내용

영재의 교육 프로그램	11. 영재교육 프로그램 경험 11-(1) 영재 프로그램 사용 의향 16. 영재교육 프로그램 (1-9)

가.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경험에 대한 현황

영재들을 위한 수업 프로그램을 접해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교사들이 전체 응답자의 90.8%였고,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들이 9.2%였다. 대다수의 교사들이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접해 본 경험이 없음을 알 수 있다.

< 표 21 >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경험에 대한 분석

N(%)	16(9.2)	158(90.8)	174(100)
------	---------	-----------	----------

나.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사용 의향에 대한 인식의 현황

영재교육 프로그램 사용 의향에 대한 문항은 영재교육 프로그램 경험이 있는 16명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 결과 영재들을 위한 수업 프로그램을 일반 수업이나 심화학습시간에 영재들을 위해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들이 75.5%였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교사들이 25.0%였다. 이는 교사들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일반 교사들에게 영재교육의 프로그램이나 자료에 대한 연수를 할 경우 영재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영재들을 위한 좋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표 22 >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사용 의향에 대한 분석

N(%)	12(75.0)	4(25.0)	16(100)
------	----------	---------	---------

다.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의 현황

< 표 23 >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N(%)

		N	M	SD
1	속진 프로그램	158	1.28	.542
2	심화 프로그램	157	1.35	.587
3	압축 프로그램	155	1.20	.489
4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의 의미와 그 차이	160	1.94	.694
5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의 의미와 그 차이	160	2.00	.727
6	브레인스토밍의 방법과 규칙	160	1.94	.627
7	스캅퍼(SCAMPER)	156	1.17	.427
8	창의적 문제 해결(CPS) 과정의 기본 모형	158	1.41	.588
9	렌줄리의 삼부심화학습 모형	157	1.18	.513
전 체		1421	1.50	.674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의 분석과 해석은 변인별 분석이 아닌, 3단계 척도인 전혀 모른다(1), 조금은 알고 있다(2), 잘 알고 있다(3)에 따라 분석하였다. <표 23>과 같이 인식 차이를 알기 위해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이용하여 전체적인 경향을 살펴보았다.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은 평균 1.50으로 보통의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의 의미와 차이에 대한 문항과 창의성에 대한 문항, 브레인스토밍의 방법과 규칙에 대한 문항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의 기본 모형, 심화 프로그램, 숙진 프로그램, 압축 프로그램, 렌줄리의 삼부심화학습 모형, 스캅퍼는 문항은 모두가 보통 이하였다. 즉, 창의성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평균 이상의 높은 인식을 보였으나, 영재교육 특유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낮은 인식을 나타냈다. 이는 영재의 판별 방법으로 창의성 검사를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듯이 교사들의 창의성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고력 프로그램이나 영재 교육의 기본 이론에는 낮은 인식도를 보였다.

5. 초등학교 교사들의 영재 담당 교사에 대한 인식의 현황

영재 담당 교사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관련된 문항은 다음과 같다.

< 표 24 > 영재 담당 교사에 대한 설문 문항 번호 및 내용

영재 담당 교사	12. 영재교육 연수 참여 의향 12-(1) 참여, 불참여 이유 14. 영재 담당 교사 의향 14-(1) 이유 14-(2) 원하는 인센티브
----------	---

가. 영재교육 연수 참여에 대한 인식의 현황

< 표 25 > 영재교육 연수 참여에 대한 분석

N(%)	99(56.9)	75(43.1)	174(100)
------	----------	----------	----------

< 표 26 > 영재교육 연수 참여 의사에 대한 이유 N(%)

영재에게 적절한 지도를 하기 위해서	46(46.5)	영재교육보다 다른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6(7.8)
영재교육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13(13.1)	다른 업무가 과다해서	5(6.5)
영재교육에 관심이 있고 필요성을 느껴서	7(7.1)	관심이 없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7(9.1)
영재를 발굴하고 싶어서	0(0)	영재교육을 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서	4(5.2)
국가 발전을 위해서	0(0)	영재교육은 영재 전문가가 해야 되기 때문에	6(7.8)
무 응 답	33(33.3)	무 응 답	49(63.6)
전 체	99(100)	전 체	77(100)

영재교육에 대한 연수 기회가 온다면 받고 싶다고 응답한 교사들이 전체 응답자의 56.9%였고, 받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교사들이 44.0%였다. 많은 교사들이 연수를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학교 자체 연수나 자율 연수 중에도 영재 교육에 대한 연수의 기회를 갖도록 영재교육에 대한 연수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영재 담당 교사들 뿐 아니라 일반 교사들에게도 영재교육에 대한 연수의 기회를 확대하여, 영재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증대해야 할 것이다.

연수를 받고 싶어 하는 이유로 영재에게 적절한 지도를 하고 싶다는 51.7%로 가장 많이 들었으며, 영재교육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영재교육에 관심이 있고 필요성을 느껴서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재교육에 관심이 있는 교사들이 영재들을 위한 지도에도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영재교육 연수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여 일반 교사들에게도 영재교육에 대한 연수의 폭을 넓히는 것이 영재 담당 교사 양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연수를 받고 싶지 않은 이유로는 관심이 없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10.0%로 가장 높았고, 영재교육 보다 다른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영재교육은 영재 전문가가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업무가 과다해서, 영재교육을 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서 순이었다. 이는 교사들이 영재에게 적절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인식도는 높으나 자신이 직접적으로 교육하는 것에는 인식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까닭은 과중한 주당 수업 시수, 과다한 업무, 그리고 연구 시간의 부족 등을 들 수 있겠다.

나. 영재 담당 교사 의향에 대한 인식의 현황

영재 담당 교사의 기회가 오면 영재교육을 할 의향이 있느냐는 문항에 9명의 교사가 무응답을 하였으며, 가장 많은 교사들이 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영재 담당 교사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이 매우 낮음을 나타내고, 영재교육에 대한 연수를 받고 싶다는 교사들도 일부는 영재 담당 교사가 되기는 꺼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무엇보다도 영재에 대한 교육이 또 하나의 업무로 교사들이 과중하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성별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p < .05$). 즉 남자 교사들은 영재 담당 교사를 하고 싶다는 교사들과 하고 싶지 않다는 교사들이 똑같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여자 교사들은 하고 싶지 않다는 교사들이 하고 싶다는 교사들보다 3배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대체로 여자 교사들보다 남자 교사들이 영재 담당 교사로서의 관심도가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표 27 > 영재 담당 교사 의향에 대한 분석 N(%) * $p < .05$

성별	남	6(46.2)	1(7.7)	6(46.2)	13(100)	6.633	.036 *
	여	26(17.1)	28(18.4)	98(64.5)	152(100)		
교직경력	5년 미만	7(21.9)	7(21.9)	18(56.3)	32(100)	10.288	.245
	5년~10년 미만	7(26.9)	3(11.5)	16(61.5)	26(100)		
	10년 ~ 15년 미만	5(26.3)	6(31.6)	8(42.1)	19(100)		
	15년 ~ 20년 미만	2(10.5)	5(26.3)	12(63.2)	19(100)		
	20년 이상	11(15.9)	8(11.6)	50(72.5)	69(100)		
연령	20대	7(28.0)	6(24.0)	12(48.0)	25(100)	6.487	.593
	30대	12(23.1)	9(17.3)	31(59.6)	52(100)		
	40대	8(16.7)	9(18.8)	31(64.6)	48(100)		
	50대	5(13.5)	5(13.5)	27(73.0)	37(100)		
	60대	0(0)	0(0)	3(100)	3(100)		
전 체		32(19.4)	29(17.6)	104(63.0)	165(100)		

< 표 28 > 영재 담당 교사 의향에 대한 이유

N(%)

국가의 미래를 위한 책임감을 느껴서	7(21.9)	능력이 부족하고 생각되고 자신이 없어서	24(23.1)
영재에 대한 교육적 서비스를 하고 싶어서	5(15.6)	영재교육은 영재 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5(4.8)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싶어서	4(12.5)	관심이 없고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아서	9(8.7)
관심이 있고 보람이 있을 것 같아서	5(15.6)	업무가 과다해서	4(3.8)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고, 새로운 교수방법을 알고 싶어서	4(12.5)		0(0)
무응답	7(21.9)	무응답	62(59.6)
전체	32(100)	전체	104(100)

영재 담당 교사가 되고 싶은 이유로 교사로서의 국가적 책임을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영재 담당 교사를 하고 싶지 않은 이유로는 무응답이 가장 높았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자신이 없어서, 관심이 없고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아서, 영재교육은 영재 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업무가 과다해서가 순이었다. 이는 교사들이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영재에 대한 부담감으로 적극적으로 영재교육에 참여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 표 29 > 영재 담당 교사가 될 경우 원하는 인센티브

국외 연수	9(31.0)
업무 경감	8(27.6)
연구비 보조	6(20.7)
유급 연구년	4(13.8)
전보 제외	1(3.4)
무응답	1(3.4)
전체	29(100)

또한 인센티브가 있으면 하고 싶다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원하는지 기록하는 문항에서 교사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폭 넓은 경험을 요하는 국외 연수가 가장 높았으며, 업무 경감과 연구비 보조 또한 높게 나타났다.

IV. 결론 및 제언

이제까지 초등학교 교사들의 영재교육에 대한 인식을 다섯 가지 영역인, 일반적 인식, 영재의 특성에 대한 인식, 영재의 판별에 대한 인식,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영재 담당교사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상의 연구 과정을 통해 본 연구의 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첫째, 초등학교 교사들의 영재교육에 대한 일반적 인식의 현황

아직도 대다수의 교사들이 영재교육진흥법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학교교육이 영재의 잠재능력을 제대로 계발하지 못하고 영재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영재교육이 필요한 이유로 아동의 잠재적 능력 발휘를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영재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는 전인교육의 중요성, 영재교육의 미비와 모호한 영재선발을 인식하고 있었다. 많은 교사들이 영재에 대한 교육적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영재가 있을 경우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영재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즉, 많은 교사들이 영재교육에 대해 이미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있으며, 영재교육에 대한 전망을 희망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많은 교사들이 영재들에 대해 다른 아동과 똑같이 정규 수업으로만 지도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영재교육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는 하지만, 학급 내 영재에 대한 판별 방법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영재에 대한 교육적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많은 교사들이 영재교육에 있어서 교사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자료가 개발되어 많이 보급되기를 희망하고, 영재를 직접 지도하는 교사에 대한 연수와 양성, 그리고 교사들이 영재를 판별 하는 정확한 방법 등에 대한 연구 등이 영재교육을 더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초등학교 교사들의 영재의 특성에 대한 인식의 현황

대체로 영재들의 학습적인 측면이나 지적인 면보다는 정의적 영역에 있어서 더 낮은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영재아의 실제 지도에 있어서도 지적인 면에서는 교사들이 지도가 가능할 수 있으나 심리적 측면에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상담에서는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영재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재교육에 대한 연수에서 영재의 지적인 면뿐만 아니라 영재아의 정의적 측면에서의 연수와 영재 상담에 있어서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 하겠음을 보여준다.

셋째, 초등학교 교사들의 영재의 판별에 대한 인식의 현황

영재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가장 적당한 시기로 초등학교 저학년과 유치원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영재교육에 대한 의향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많은 교사들이 영재교육의 조기 실시에 대한 인식이 강하였으며, 영재 담당 교사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매우 낮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영재교육에 대한 연수를 받고 싶다는 교사들 중의 일부도 영재 담당 교사가 되기는 꺼려하고 있음에서 영재교육이 또 하나의 업무로 교사들이 과중하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재 판별 방법으로 창의력 검사를 가장 많이 선호함을 알 수 있었고, 지능 검사와 학업 성취도 검사 등의 각종 검사들을 신뢰하고 있는 반면, 교사 자신의 추천이나 부모나 동료의 추천 방법에 대해서는 매우 신뢰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학급 내에 영재가 없다고 응답한 교사들이 많은 사실로써, 영재의 정의와 특성 및 영재 판별 방법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게다가 학급 내 영재의 수도 5% 이내의 아주 극소수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영재에 대한 편입견이나 바르지 못한 인식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넷째, 초등학교 교사들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의 현황

대다수의 교사들이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접해 본 경험이 없었고, 경험이 있는 교사들은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일반 수업이나 심화학습시간에 영재들을 위해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교사들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일반 교사들에게 영재교육의 프로그램이나 자료에 대한 연수를 할 경우 영재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영재들을 위한 좋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은 보통의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확산적 사고, 수렴적 사고, 창의성 등에 대한 인식은 평균 이상이었고, 다른 교육과 차별되는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전문적인 내용인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 심화

프로그램, 속진 프로그램, 압축 프로그램, 렌졸리의 삼부심화학습 모형, 스캠퍼 등에서는 평균 이하였다.

다섯째, 초등학교 교사들의 영재 담당 교사에 대한 인식의 현황

영재 담당 교사 연수를 받고 싶어 하는 이유가 영재에게 적절한 지도를 하고 싶다는 것으로 보아, 영재교육에 관심이 있는 교사들이 영재들을 위한 지도에도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재교육 연수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여 일반 교사들에게도 영재교육에 대한 연수의 폭을 넓히는 것이 영재 담당 교사 양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연수를 받고 싶지 않은 이유로는 관심이 없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 아직도 영재교육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며, 영재에게 적절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인식도는 높으나 자신이 직접적으로 교육하는 것에는 인식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까닭은 과중한 주당 수업 시수, 과도한 업무, 그리고 연구 시간의 부족 등을 들 수 있겠다.

영재 담당 교사의 의향에서 대부분 하고 싶지 않다고 한 것으로써, 영재 담당 교사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영재 담당 교사가 되고 싶은 이유로 교사로서의 국가적 책임을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었고, 영재 담당 교사를 하고 싶지 않은 이유로는 무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는 교사들이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영재에 대한 부담감으로 적극적으로 영재교육에 참여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또한 영재 담당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로 국외 연수가 가장 높았으며, 업무 경감과 연구비 보조 또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영재교육의 효율성과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교육청 영재중심학교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다른 지역의 현황과 연수 효과에 대해서도 분석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일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2004년도부터 실시되고 있는 각 교육청별 영재 중심 학교의 영재 담당 교사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인식의 변화를 시킬 수 없었던 영재 담당 교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과 정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구자역 · 김홍원 · 박성익 · 안미숙 · 이순주 · 조석희(2002). *동서양 주요국가들의 영재교육*. 서울:문음사.
- 김재은.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문제점 및 발전 방향*. 한국교육개발원
- 박미영(2002). *영재교육에 대한 초등 및 유치원 교사의 인식에 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박정옥(2001). *Attitude Toward Gifted Education in Korea, 12th World Conference of the World Council and Talented Children 발표*.
- 우희정(2003). *영재교육 프로그램 담당교사의 영재교육관련 지식수준에 대한 실태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유미림(2002). *영재교육에 대한 국제비교 및 교사·학부모의 인식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승현(2001). *영재교육 제도와 운영 방안에 대한 교사의 인식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인섭(2002). *학교에서의 영재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에 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경원(1994). *휴머니즘에 입각한 특수한 영재교육*. 서울:서원.
- 전경원(2000). *영재교육학*. 서울:학문사.
- 조석희(1997). *일반 학교에서의 영재교육 진흥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조석희 · 오영주(1997). *영재 교육 정책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Carol A. Strip, Ph.D(2000). *Helping gifted children soar*. Great Potential Press.
- Karen B. Rogers(2002) *Re-forming Gifted Education*. Great Potential Press.

ABSTRACT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ption of Gifted Education

Moon Kyung Choi, Jung Ok Park

Kyungwon University,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on the current status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ption of gifted educatio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will analyze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ption of the gifted education (i.e., general perception of gifted education, characteristics of gifted children, identification of gifted children, programs for gifted education, and teachers of gifted education).

A questionnaire survey was used for the purpose and research questions of this study. The questionnaire used in this study was constructed by taking into account the results of surveys conducted in previous studies and the literature on gifted education.

Before conducting the research, a preliminary inquiry was made to identify problems that may occur while the subjects were participating in the survey, as well as to determine the appropriateness of the questionnaire and the amount of time needed. The preliminary inquiry was conducted with ten randomly selected elementary school teachers who did not participate as subjects in the actual research. The results were later used as initial data for the actual research.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teachers who were teaching in 8 elementary schools under each office of education in Seoul. This process was conducted for 180 elementary school teachers from April to May 2004. The results were analyzed using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er. 10.1, a software program for statistical research.

After the data were analyzed,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arrived at:

1. The result of the general perception of gifted education by elementary school teachers were positive and reasonably high. The level of their perception of detailed information or knowledge, however, was relatively low.
2. As for their perceptions of the emotional characteristics of gifted children, the results showed a low level of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gifted children.
3. As for their perceptions of identification of gifted children, the results showed a high level of understanding of the appropriate time to provide special education to gifted children and of the methods to identify such. On the other hand, their understanding of the identification of gifted children in an actual class was poor.
4. The respondents' level of perceptions of programs for gifted education was very low since many subjects did not have any experiences with such programs.
5. The results showed a very positive response to receiving training on gifted education, though they were very reluctant to be assigned as teachers of gifted education because of the excessive work that is associated with such and their lack of capability in handling gifted children.